

종편채널 등장과 방송광고시장 대응방안



종편의등장이 새로운 광고판매 시스템 도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광고시장 확대 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 지난 9월 23일 한국광고학회 주최로 열린 '종합편성채널 및 미디어랩 등장에 따른 광고계 대응방안' 특별 세미나에서 박정래 숙명여대 겸임교수는 이 같이 밝히고, "지금까지 고착화된 지상파 중심의 광고시장에서 종편 등장으로 인한 경쟁 상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"이라고 전했다. 박 교수는 또 "법적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종편의 광고영업 시작이 미디어랩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"으로 예상했다.

종편 4개사의 편성 및 광고판매 특성

종편 4개사는 오는 12월 1일 개국을 목표로 10월중 매체설명회를 개최한다. 10월 5일 채널A를 시작으로, 10월 6일 JTBC, 10월 18일에는 TV조선, 10월 24일에는 MBN이 각각 광고주 초청 매체설명회를 갖는다.

<표 1> 종편 개국 일정 및 예상 대표 프로그램

종편채널	개국일	사업자	편성예정 프로그램
JTBC	2011.12.01(예정)	중앙일보	빠담빠담 -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, 발효가족
TV조선(CSTV)	2011.12.01(예정)	조선일보	고봉실 여사 구하기, 한반도
채널A	2011.12.01(예정)	동아일보	황제를 위하여
MBN	2011.12.01(예정)	매일경제	뱀파이어 아이돌(가제), 꽃미남과 신데렐라(가제)

종편채널은 케이블TV로 인허가된 프로그램공급자(PP:Program Provider)이나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편성이 가능하다. 그러나 현재 지상파는 방송시간 규제가 있는 반면 종편채널은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는 프리미엄이 있다. 또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:System Operator)의 의무전송채널로 개국과 동시에 85%의 시청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. 아직 채널번호 지정은 협상중이다. 종편채널의 광고규제는 케이블TV에 준하기 때문에 직접 광고영업이나, 중간광고가 가능하고, 비교적 유연한 광고운영이 예상된다. 잘 알려진 대로 유력 신문사가 지배주주로, TV조선은 조선일보가 20%, JTBC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25%, 채널A는 동아일보가 29.3%, MBN은 매일경제신문사가 12.6%의 지분을 갖고 있다.